독서

독서와 수면제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느냐고 질문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읽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학생이 생뚱맞게 "선생님이 읽으라니까 읽는 거지요."라고 대답하니까 순간 교실은 "하하하!", "호호호!"하고 웃음바다가 되었다.

잠시 후 그 선생님은 "이 녀석들아, 책은 재미있으니까 읽는 거지 재미없으면 누가 읽겠냐?"라고 하자, 한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의 할머니는 재미없으니까 읽는대요. 그래야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도 빨리 주무실 수 있다는데요."

그러자 교실은 다시 한 번 웃음소리가 넘쳐흘렀다.

그로부터 몇 십 년 뒤 필자가 책을 썼을 때도 그 학생의 할머니처

럼 잠 안 올 때 읽으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나누어준 적이 있다. 철학을 주제로 한 책은 사람들이 졸린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하다. 읽는 사람의 나이와 신분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독서법에 대한 책도 이미 나와 있다. 한번은 친척이 필자를 방문하고는 서재와 거실과 작은방까지 점령한 책을 보고, "이 박사, 이 책들을 다 읽었는가?"라고 묻자 "아닙니다.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는데, 필요할 때 읽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연구에 참고하거나 책을 쓸 때, 또 뭔가 잘못 알고 있을 때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저자의 생각을 따르거나 비판하고자 할 때, 모자라는 내 지식을 보충할 때, 수양을 위해 성현의 가르침을 참고할 때 등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유학자들이 독서를 하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독서법도 당연히 있다. 여기서는 율곡 선생이 말하는 독서의 목적과 독서법, 그리고 그것이 수양하는 데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겠다.

독서의 목적은 덕을 쌓는 일

앞서 현대인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생과 같은 유학자들은 무엇을 위해 책을 읽었을까? 물론 요즘 학생들

처럼 시험공부를 위해 책을 읽기도 하였다. 과거 시험을 위한 준비가 그것이었다. 선생의 『격몽요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 공부에 매여서 학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핑계 대는 말이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보인다. 선생은 당시의 현실이 과거를 통하지 않으면, 공부한 것을 실천할 지위에 나아갈 길이 없기에, 과거 공부 자체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위한 진정한 학문을 과거 공부 때문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선생이 권장하는 독서는 과거 시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오늘날 학생들이 독서하는 일이 대부분 입시와 관련되고, 겨우 몇몇 학생들만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 후자의 독서는 선생이 말하는 독서의 목적과도 연관된다. 그들의 인성과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입시를 위한 독서를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교양을 쌓는 독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선생이 주장하는 독서의 목적은 『주역』을 풀이하는 글에 보인다.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것이 대축괘大畜卦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옛날의 훌륭한 언행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쌓는다."라는 『주역』 「대상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대축괘의 모양은 ䷙인데, 위의 ☶은 산을 상징하고 아래의 ☰은 하늘을 상징한다. 이 괘의 모양은 하늘이 산 속에 들어있으니, 산 속에 하늘을 쌓아두는 형상이다. 그래서 크게 쌓는다는 대축의 뜻이 되었다. 문제는 이것으로 독서의 목적이 금

방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이의 주석에 따르면 "아주 큰 하늘이 산 속에 있으니 쌓은 것이 매우 큰 형상이다. 군자가 이것을 보고 크게 쌓아 둔다. 사람이 쌓아 두는 것은 배움을 통해 커지는데, 옛 성현의 언행을 많이 듣는 데 달려 있다. 성현의 자취를 살펴 드러난 것을 관찰하고, 성현의 말을 살펴 그 마음을 찾아, 이를 알고 습득해서 덕을 쌓는 것이 바로 대축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독서를 통해 성현의 언행을 듣고 자취나 말을 살핀다. 이것을 보면 독서의 목적이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덕을 쌓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에는 주희의 말이 있다. 그는 성인만이 세상의 참된 이치를 다 밝혀서 후세에 절대적인 규범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이치를 잘 따르는 자는 군자가 되어 삶이 길한데, 그 길한 것이 많으면 천하를 얻기까지 한다고 한다. 그 반대면 소인이 되어 삶이 흉하게 되는데, 그 흉한 것이 많으면 제 몸도 보전하지 못하여 경계하는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분명한 자취와 필연적인 결과가 경전의 가르침과 역사책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려고 하면서 이 경전과 역사책에서 찾지 않는다면, 이는 담장 앞에 선 것과 같다. 이것이 궁리가 반드시 독서에 달려있는 이유이다." 라고 하여, 오직 성인만이 이치를 잘 밝혔고 그것을 잘 따르면 군자가 되는데, 그 마저도 책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다고 한다. '담장 앞에 선 것과 같다'는 말은 깜깜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로서, '알아야 면장免牆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곧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면장面墻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알아야 시골의 면장面長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론상의 방법을 하나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탐구 대상과 방법〉에서 말했던 이치를 찾는 궁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독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독서의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궁리를 위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성현의 언행을 보고 자신의 덕을 쌓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덕을 쌓으므로 당연히 마음공부와 관련된 수양의 일이다.

이처럼 성현이 남긴 글을 읽는 것이 자신의 덕을 쌓은 일과 관계됨은 현대 교육학의 관점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가치가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기도 하거니와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옳고 그르며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가치 판단이 진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하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곧 고전의 글이라고 해서 모두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특정한 시대의 가치를 문자 그대로 무조건 옳다고 여긴다면, 과거의 문화와 가치에 갇혀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독서는 시공을 넘나들며 폭 넓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도 가치 못지않게 지식을 추구하는 일도 각자의 수양을 위해 필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윤리적 가치는 객관적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리 판단이 어두운 연로하신 부모께

약을 드시게 했을 경우, 설령 동기가 순수해도 약의 용도를 알고 드렸느냐 모르고 드렸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효도와 불효로 갈린다. 독약일 수 있고 양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행위는 이렇게 사실에 의존한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어서 다양한 독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 현대인으로서 이렇게 성현의 말씀만 읽는 것은 마치 독실한 기독교인이 주야장천 성서만 읽는 것과 같아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선생은 "사물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으니 다 궁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가치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조짐과 『시경』에 등장하는 초목과 동물의 이름 등을 익히는 지식의 중요함도 아울러 말하였다.

독서는 마음만의 양식인가?

선생이 생존했던 조선 시대 당시의 서적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달리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다양성이 있었다. 유교 경전 외에 문학·역사·천문·지리·병법·의학·농업 외에 제자백과, 불교나 도교, 잡술 등에 관련된 책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권하는 독서의 순서는 『소학』에서 시작하여 『사서四書』(대학·논어·맹자·중용)와 『육경六經』(시경·서경·역경·예기·악기·춘추) 그리고 역

사서와 앞 시대의 성리학자들의 글 정도이다. 선생은 이 유교 경전을 읽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너무 길어서 지면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겠다. 다만 유학과 다른 종교와 학파에 대한 글은 권장하지 않고 경계하였다. 이 점은 당시 성리학자들이 학문적 포용성이 부족하여 편협하다고 현대에 비판받는 점이기도 하다.

선생은 당시 선비들의 잘못된 독서를 비판한다. 먼저 독서를 통해 부귀나 이욕을 찾으려 하는 일이 잘못이란다. 독서를 통해 덕을 쌓는 일이 우선인데, 그것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실현하려 하므로 그 독서의 동기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아마 과거 시험이나 남의 스승 되기 위한 독서의 동기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독서가 단지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는 자료가 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하는데, 독서가 수양과 나라를 경영하는 실천에 연결되지 않음을 비판한 말이다.

그래서 당시 선비들을 두고 "많이 찾아 조사하고 널리 상고하여서 겉만을 꾸미는 데 힘쓰고, 자기 몸에 절실한 일을 하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음이 어찌 심하지 않은가?"라고 하여, 독서가 일차적으로 수양하는 실천에 연결되지 않음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선생의 『격몽요결』에서도 「독서장」을 따로 둘 정도로 독서를 강조했는데, 거기서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유가들에게 있어서 독서는 가치를 탐구하는 궁리의 한 방법이고, 궁리는 수양의 도구이며 수양은 마음의 덕을 쌓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격언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대는 덕을 쌓기 위해서만 독서하지 않는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더 잦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아 입사하고, 또 거기서 적응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독서는 가히 마음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이기도 하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존만을 위한 독서는 참으로 비루하다. 그게 필요한 일이기는 해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공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참다운 행복도 인간다운 삶도 찾을 길이 없다.

다양한 독서법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기를 "무릇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한 책을 충분히 읽어서 의미를 다 깨달아 이해하고, 의문 나는 것이 없으면 다시 다른 책을 읽는다. 많이 읽기만을 탐내고 책을 통해 얻는 것에 너무 힘쓴 나머지 바쁘게 이 책 저 책 섭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정독精讀을 강조했다.

거기서 소개하는 독서법을 요약하면 바른 자세, 마음 집중, 깊이 생각하기, 깊숙이 이해하기, 실천에 적용하기 등이다.

선생이 이렇게 소개했지만, 독서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독특한 독서법이 있다. 필자도 몇 가지 독서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

나가 부닥친 삶의 문제에서 지혜를 깨닫기 위해 읽는 경우이다. 아무리 좋은 글이나 가르침도 깨달아 체득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깨달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옮기고 피와 살이 된다.

그 시작은 이십대 후반이었다. 어떤 인생의 화두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책 속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힘들게 고민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쉽게 잊지 못했다. 그 이십대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겠냐마는 한 동안 그 깨달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깨달음의 질은 공부의 깊이와 비례한다. 책을 통해 얻는 것도 그러하다. 지금도 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다가오면 당장 메모해 둔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신문·방송 등 매체가 하도 많아 사람들은 책을 거의 안 읽는다. 출판사들은 망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독자들이 그러니 책 쓰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유투버YouTuber로 활동하기도 한다. 책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일까? 각종 매체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나와 말하거나 실물을 보여주니, 시청자는 정보와 지식에 편하게 접근하지만 수동적이다. 그 수동적 태도가 삶의 지혜를 깨달을 때는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다. 연속되는 소리와 영상이 되레 깊은 생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책 속의 내용을 보고 반복해 되씹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사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독서의 장점도 유효하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도 아니기에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